

순천시 상생토크 시민 제안 356건 중 87건 즉시해결

건의 사항, 도로 분야 39건으로 가장 많고 가족복지·문화예술 순 중장기 계획 88건 해결 모색... 11월 제안자 초청 추진 결과 공유

순천시가 지역민들이 제안한 지역 상생방안 해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15회에 걸쳐 개최했던 '2024 순천상생토크'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순천시는 상생토크에서 제안된 지역민들의 356건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행기 위해 국소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에는 제안자들을 초청해 건의부터 시행까지 추진 결과를 책임지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총 356건 제안 중 87건 즉시해결 = 그동안 읍면동 중심으로 치러졌던 순천상생토크가 올해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형식을 변경했다.

유사한 정주여건과 욕구를 가진 지역민들이 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상생토크에서는 내는 제안을 듣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이에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 상생토크 총 2000명이 참석자중 300명의 356건의 건의와 제안이 쏟아졌다.

모든 제안을 분석한 결과, 현안별로는 45건, 아동·청년·노인·장애인·문화체육인·농업인 등 계층별로는 160건, 읍면지역 권역별로는 151건이 접수된 것으로 분류됐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건의한 사항은 도로 분야(39건)로 확인됐다. 가족복지 분야(27건), 문화예술 분야 (23건), 건설 분야 (23건)가 뒤를 이었다.

또 교통정책·청소지원·교통관리·청년정책·체육산업·보육아동·농업정책 분야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각 15건 이상이' 접수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확인됐다.

순천시는 제안에 대해 부서 검토를 거쳐 각 상생토크일로부터 7일 내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마쳤다.

특히 배수로·환경정비, 청년경제분과 신설 등 현안 분야 8건을 포함한 87건은 상생토크 직후 해결



순천시 서면에서 진행된 순천상생토크에서 시민들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고 완료 결과를 안내했다.

◇중장기·복합 민원은 협업으로 해결=356건 중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88건, 여러 부서에 중첩되는 복합민원도 44건으로 집계됐다.

순천시는 즉시 해결·처리불가 사안은 제외하고 단기계획 153건, 중장기 계획 88건 등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러 부서가 중첩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드는 협업 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한다는 것이 순천시의 복안이다.

계획이 수립되면 8월 중 모든 관련 부서가 참여

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거나 부서 간 조율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1년 이상 정책적 또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11월에는 추진 상황 보고회 =순천시는 상생토크에서 제안된 시민들의 의견이 1회성으로 검토·증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건의에서 추진·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체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는 상생토크에서 순천시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제안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제안의 처리 과정과 결과, 처리불가 사유까지도 상세히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던 상생토크에서 순천시민의 높은 안목과 폭력을 확인했다"면서 "시민들께서 모아주시는 지혜로 지금보다 더 살고 싶은 순천, 수도권에서도 부러워 찾아오는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정기명 여수시장, 직접 뛰는 세일즈 행보로 국비 예산 확보 총력

기재부·행안부 찾아 반영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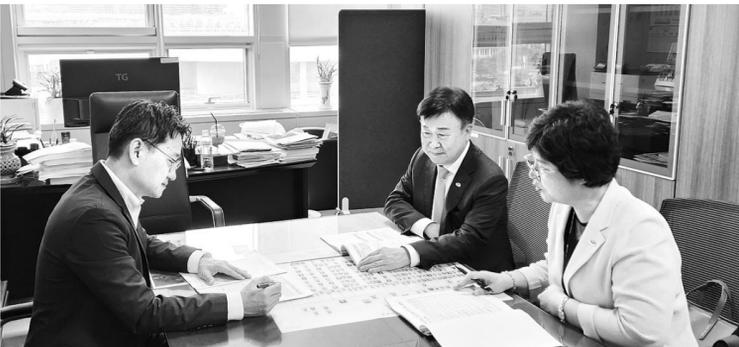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는 전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추진 타당성을 설명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직접 기획재정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직접 만나 여수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여수시가 건의한 사업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삼산면 장촌-죽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광양(IV) 공업용수도 사업',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등이다.

특히 섬박람회가 임박함에 따라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비 55억 4000만원을 요청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오른쪽 위)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지역 현안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또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섬박람회와 밀접한 대형 SOC사업으로 개최 시기에 맞춰 조기 또는 임기 개통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뜻도 전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교부세 및 자체세입 감소로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알리고,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가지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고흥군 다음달 30일 서울서 귀농귀촌 설명회

고흥군이 수도권의 예비 귀농·귀어인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고흥군은 다음달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서울·경기권 예비 귀농어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흥군 귀농어귀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네 번째 개최하는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높다

는 점에서 설명회 효과가 높다는 것이 고흥군의 판단이다.

설명회에서는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종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 등 고흥군 주요 귀농어귀촌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1:1 심층 상담까지 진행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복덩이 쌍둥이 탄생'에 환영 물결

각계 축하 꽃다발·선물 답지

저출생 문제로 지방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곡성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사가 났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곡성군 석곡면에 거주하는 김연수, 홍진아 부부가 딸 쌍둥이를 출산했다.

'쌍둥이 탄생' 소식을 접한 곡성군은 지난 22일 쌍둥이 가정을 방문해 꽃다발과 기저귀 등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또 출산 장려 문화에 앞장선 것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도 전했다.

이에 쌍둥이를 출산한 엄마 홍진아 씨는 "쌍둥이 탄생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주위의 축복과 응원으로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곡성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 300만원,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둘째 이상), 부모급여 10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15만원 상당), 산모 산후조리비(최대 50만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 50만원 등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곡성=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례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지원

구례군이 치매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지원을 확대했다.

구례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802만 2000원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구례 군민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료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 확인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620명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치매 환자 중 64%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군의 예상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치매안심센터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061-780-2933)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마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마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